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3

공리주의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공리주의입니다.

좋아요, 주요 도덕 이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리주의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리주의 사상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철학자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벤담은 실제로 현대 공리주의 사상의 창시자였고,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는 제러미 벤담의 절친이었습니다. 아마도 공리주의를 옹호한 가장 유명한 학자는 밀일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일종의 쾌락주의자였던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쾌락주의는 인간에게 궁극적인 선은 쾌락이며,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쾌락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벤담이 처음 개발한 공리주의적 쾌락주의는 행복, 인간의 행복이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중심 주장을 확언합니다.

그래서 벤담은 에피쿠로스처럼 윤리에 대한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쾌락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쾌락과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고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쾌락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쾌락을 원하고 즐거운 삶을 원하며, 그것은 도덕성에 대한 유망한 기준인 듯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직관입니다.

고전적 공리주의, 종종 불리는 행동 공리주의는 우리가 지지하거나 추구할 수 있는 개별 행동이나 정책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러미 벤담이 하는 주장은 우리가 각 행동을 그가 공리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리의 원칙이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동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공리주의 이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해하기 쉬운 이론입니다. 우리는 칸트, 덕 윤리, 사회 계약 이론, 자연법 등 더 어려운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이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더 간단한 것이 있을까요? 쾌락과 행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세요, 맞죠?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여기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배려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존재든, 인간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지각 있는 존재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쾌락이나 고통도 다른 누구의 쾌락이나 고통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우 평등주의적인 종류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와 에피쿠로스의 고대 쾌락주의의 차이점은 그가 쾌락-고통 계산이라고 불리는 것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과학이 이룩하고 과학자들이 우리 세계를 이해하는 데 수학의 유용성을 발견하고 있는 현대, 초기 현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이제, 벤담은 이것이 윤리에 대해 생각할 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한 한 과학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는 쾌락-고통 계산법을 개발했는데, 이는 여러 기준에 따라 각 행동의 쾌락이나 고통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강도로, 우리는 감각이 얼마나 강한지 묻습니다. 고통이나 쾌락은 얼마나 강렬한가? 지속 시간: 쾌락이나 고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확실성: 행동을 취하면 고통이나 쾌락이 생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근접성은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하는 단어이지만, 이는 쾌락이나 고통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뒤따를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요? 다산은 또 다른 흔하지 않은 용어로, 이 경우 쾌락이나 고통이 다른 종류의 쾌락이나 고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문제의 행위가 다른 종류의 쾌락과 고통으로 이어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쾌락이든 고통이든 순수함은 반대 감각과 섞여 있습니다. 대체로 쾌락적이지만 다소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쾌락적이거나 전적으로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 문제의 범위는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벤담은 특정 행동 방향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각 범주에 기본적으로 양수 또는 음수의 숫자 값을 할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강할 수업에 책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구매할 여유가 없어서 이웃의 텍스트를 훔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달러나 80달러짜리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게 적절한 행동일까요? 글썄요, 저에게는 약간의 즐거움이 될 겁니다. 제 양심이 너무 나빠서 심하게 괴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고통스럽죠. 다른 사람에게에는 확실히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고통을 줄 겁니다. 그들이 그 고통을 즉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경험할 것은 확실합니다.

며칠 동안 극복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책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그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 기쁨조차도, 다시 한번, 양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고통과 섞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면서요. 그 일곱 번째 기준이 적용되는 정도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책을 훑쳐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안겨줄 겁니다. 세계는 전혀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냥 책을 사거나 빌리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는 게 나을 듯. 꽤 쉬운 경우지만, 같은 쾌락-고통 계산법은 훨씬 더 어려운 도덕적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벤담이 도덕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가장 유망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

다시 한번,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측정하고 전반적인 행복을 결정하는 데 이 계산의 유용성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평등주의적인 것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벤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흥미롭거나 큰 관심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동물 복지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양이, 개, 염소, 닭, 소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특정한 존중을 받을 만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학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동물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보다 훨씬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중하며, 그들의 고통과 즐거움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리주의 이론의 자산 또는 강점 중 하나는 동물과 그들의 고통과 쾌락을 고려하고 우리가 동물에 대한 어떤 종류의 도덕적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동물 권리 운동 또는 동물 복지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의 역사적 기원으로 벤담을 지적합니다. 동물에 대해 말하자면, 공리주의 이론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그것이 돼지에게 어울리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쾌락보다 더 높은 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돼지와 같은 수준에 두는 것입니다. 돼지의 삶의 쾌락은 먹고, 짹짹하고, 진흙 속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돼지가 쾌락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런 난폭한 쾌락입니다. 분명 인간은 동물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을 단지 쾌락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벤담 시대와 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것은 실제로 인간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이론의 주요 철학적 지지자로서 벤담의 후계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러한 반대에 대해 비판하거나 대답하면서, 비판 자체가 인간 본성을 폄하하는 빛으로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돼지가 할 수 있는 쾌락을 제외하고는 어떤 쾌락도 할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은 더 높은 쾌락, 질적으로 더 우수한 쾌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돼지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포유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적 능력과 관계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든 이 이론에 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밀은 그 이후로 질적 쾌락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옹호했는데, 이는 벤담의 이론 버전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른 종류의 쾌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의 쾌락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상상력의 쾌락, 심지어 도덕적 쾌락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일종의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어떤 개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개도 체스 게임을 즐기지 못합니다

저는 체스 게임을 좋아합니다. 저는 Settlers of Catan이나 포커와 같은 다른 게임도 좋아합니다. 그것들은 지적인 즐거움입니다. 책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는 지적인 즐거움이죠.

제 개 오스틴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체스나 보드 게임, 포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인간이 동물보다 더 높은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질적으로 더 우수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밀의 질적 테스트는 그가 말했듯이 두 가지 쾌락 중 하나를 경험한 모든 사람 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확고한 선호도를 보이는 쾌락이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좋거나 우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우월한 쾌락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읽는 쾌락이나, 아내의 스파게티만큼 맛있는 스파게티 한 접시를 먹는 쾌락은, 내가 카라마조프 형제를 읽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쾌락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를 읽는 것.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서 많은 반발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존 던이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와 같이 훌륭한 시를 가정할 때, 더 높은 즐거움이 그랜드 테프트 오토나 어떤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밀은 어떤 쾌락이 가장 좋은지 아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습니다. 그리고 바보나 돼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문제의 자신의 측면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관련된 요인에는 지성과 감정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심지어 기분이 나쁠 때조차도 우리가 이러한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월한 상태입니다.

이제,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집단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심지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밀의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주요 요점은 품질 때문에 더 우월한 어떤 종류의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제기하는 반대 의견은, 더 높은 쾌락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하고 나서 더 낮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비디오 게임을 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책은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훌륭한 영화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정크푸드만 먹고 훌륭한 요리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패스트푸드 버거와 감자튀김을 다시 먹고 싶다. 이런 하위 쾌락을 상위 쾌락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의 예는 많다. 밀은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그는 그것이 성격의 어떤 허약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더 높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잃거나 적어도 더 높은 쾌락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은 더 낮은 쾌락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소다, 패스트푸드, 감자칩, 캔디바, 온갖 단 음식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식료품점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마운틴듀와 온갖 칩, 치즈볼 등을 사서 와, 정말 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중독되었구나 하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밀은 그것이 성격의 결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 경우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의 이론이나 그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높은 쾌락이 선호되어야 하며 , 우리가 이러한 낮은 쾌락을 선호한다면, 문제는 그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삶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만족스러운 삶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흥분과 평온입니다. 행복한 삶, 균형 잡힌 행복한 삶은 주로 평온함,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 평화와 조화가 특징이며 가끔씩 흥분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흥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중추 신경계는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로 평온함, 최소한의 고통, 그리고 흥분의 기간을 원합니다.

그는 불만족스러운 삶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은 이기심과 정신적 수양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또는 많은 경우, 그는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그들이 해야 할 만큼 돌보지 않고, 인지적으로 자신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을 수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두 가지를 모두 한다면, 당신은 확실히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삶에서 만족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교양 있는 마음, 즉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훈련된 마음은 주변의 모든 것에 무한한 관심의 원천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주제에 대해 잘 읽고 매우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상 생활과 경험에서 더 많은 자극을 찾을 것입니다. 관심사가 더 많으면 지루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게 만듭니다. 그는 세계에 대한 상당한 숙고에 충분한 일정량의 정신적 문화는 문명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유산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할 것입니다.

그는 정신 문화가 사회적 병폐를 치료한다고 믿는다. 밀은 많은 학자들이 현대에 그랬듯이 결국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모든 질병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직면한 두 가지 주요 문제입니다. 그는 고통에 이르는 빈곤은 사회의 지혜와 개인의 상식과 섭리를 합치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질병도 결국 의학과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정복될 수 있습니다.

밀의 시대 이후로, 우리는 적어도 밀의 시대에 알려진 것보다 수백 가지 더 많은 질병을 식별한 것 같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가 작동하고 돌연변이하는 방식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과 바이러스 질병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 오늘날 우리가 역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모든 질병을 근절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벤담과 밀이 주장한 공리주의 이론입니다. 각 사람은 항상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매우 영향력 있는,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철학적 도덕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공리주의에 대한 주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적용의 문제입니다. 주어진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 행동을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쾌락이나 고통을 경험할까요? 문제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결과가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틀렸습니다.

오, 난 예상하지 못했어.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알았더라면.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에 대한 인식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지금까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주어진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판단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밀은 우리가 이전 경험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그리고 제가 처한 이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예측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관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용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미래 지향적인 것에 의존하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적용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는 공리주의가 미래 지향적일 뿐이고,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결과주의적 이론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행동의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적어도 지역 수준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불의한 행동과 정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고통보다 더 많은 쾌락을 낳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리주의 이론에 대한 고전적인 비판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노예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30명의 학생이 있는 특정 학급에서 가르칠 때, 저는 때때로 이번 주나 다음 2주 안에 생일을 맞은 사람이 있는지 묻곤 하는데, 보통 한 명, 어쩌면 두 명이 손을 듭니다. 30명의 학급에서는, 좋아요, 두 명이 손을 들고, 조와 제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들게 하기 위해 제가 방금 한 일은 노예들을 매우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일은 가능한 한 무작위적이고, 그들은 30명의 사람들이 사는 이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고, 모든 요리를 하고, 모든 세탁을 하고, 우리 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알다시피, 우리 차의 오일을 교체하고, 전구를 교체하는 등 우리 단지의 다양한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매일 10시간씩 할 일이며, 우리는 그들이 일요일 오후에 휴식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부터 저녁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는 작은 휴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충분히 먹고, 제대로 된 잠자리를 갖게 하여 하루 종일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지정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하인이고, 그것은 그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이제, 그것이 이 커뮤니티에서 고통보다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올까요? 글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쾌락-고통 계산을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전반적인 쾌락 가치가 향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 내가 세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거 참 좋을 텐데요.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좋을 텐데요. 저는 그것을 1에서 10까지의 척도에 3, 4, 5를 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의 다른 28명이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이 상황에서 노예 제도 찬성이 꽤 유리하게 곱해집니다. 그 두 노예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을까요? 글썄요, 알겠습니다. 상당한 고통이라고 합시다.

그저 일상적인 노동일 뿐이고, 흥미로운 사생활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밤에 외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모든 설거지를 한 후에 밤에 사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웃을 입고, 잘 먹고, 충분히 쉬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일 거예요.

아마도, 각각에 대해 -7, 8, 9, 심지어 10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나머지가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에 의해 충분히 보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공리주의자는 사실, 공리주의자들이 수년에 걸쳐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가 부당하다고 믿는다면, 바라건대 당신이 믿기를 바라지만, 여기서 고통보다 더 많은 쾌락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물이 부당할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맹목적입니다.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이론에는 정의와 권리에 대한 고려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리주의 이론에서 강조된 또 다른 주요 문제입니다.

권리의 문제는, 말하자면, 엠포기 톰 시나리오에서 잘 설명됩니다. 공리주의는, 예를 들어, 창문을 통해 그들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지켜보는 사람에게 의해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권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엠포기 톰이 매우 능숙하고 그 사람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해낼 수 있다면, 엠포기 톰은 많은 즐거움을 얻고 있고, 여기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변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라건대,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여전히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과가 그 사람이 여기에서 더 많은 쾌락을 경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에서 관련된 권리 침해의 문제를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공리주의의 심각한 한계를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 쾌락, 고통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보다 여기에서 권리에 대한 고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항상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면, 도덕적으로 진지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압도적입니다. 즉, 당신과 저는 길가에서 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과 저는 적절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일정량의 옷과 다른 재산만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소득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주어진 날의 모든 자유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가에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악기를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피아니스트나 첼로 연주자로서 고전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 수프 주방에서 일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수백, 수천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심각한 운동적 재능이나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됩니다. 이는 공리주의에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음악가가 되거나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일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과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공리주의는 적어도 그러한 것들이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다고 암시합니다.

이것이 너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를 공리주의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일종의 근본적인 어려움인데, 공리주의에 이런 함의를 가져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적 행위와 과분한 행위를 적절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반면에 좋은 일이지만 의무적이지 않은 일 사이의 구분입니다. 그것은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분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 존재들입니다. 공리주의는 그 구별을 적절히 하지 못하며, 그것이 바로 요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전적 공리주의의 네 가지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공리주의로 알려진 또 다른 공리주의 버전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적용 문제, 정의 문제, 그리고 아마도 권리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 공리주의가 제공하는 접근 방식은 우리가 개별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리주의 원칙으로 개별 행위를 평가하지 말자고 합시다.

오히려, 삶의 규칙과 일반적인 규칙을 평가하고, 그 규칙을 따르면 고통보다 더 큰 쾌락이 올지 여부에 따라 평가합시다. 그것이 규칙 공리주의적 아이디어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쾌락을 가져다주는 규칙을 따라 살아가세요.

이제, 이것은 실제로 옹호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다양한 버전이 옹호되었고, 그 중 많은 것이 사회 계약 윤리의 일반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회 계약 이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 계약론자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특정 기본 규칙이 있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를 설정해야 하며, 우리는 따르면 사회에서 즐거움을 극대화할 규칙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계약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미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권리장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 사회를 그에 따라 조직하면 광범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결정한 온갖 종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칙 공리주의의 응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별도의 강의에서 사회 계약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공리주의입니다.